



**길상사 설법전 대중법문**  
법정 길상사 회주 스님은 15일 오전 10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는 대중법회에서 법문을 한다.

**호국 흥불사 낙성법회**  
혜인 상화불교대학 학장 스님은 8일 호국 흥불사에서 봉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은평장애인복지센터 개소**  
성운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관장스님(상천사 주지)은 5일 동북관에서 은평장애인복지센터 개소식을 봉행했다.

**조계사서 통일강연**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14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남북관계의 흐름과 통일의 전망'에 관해 강연한다.

**성당서 불교의 구원관 설법**  
보광 동국대 선학과 교수 스님은 11일 오후 7시 30분 동봉구 창동 소재 정자동 성당에서 '불교의 구원관'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갖는다.

**박물관협회 사무실 이전**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국제 박물관 협회(ICOM) 한국위원회와 함께 삼성문화재단에서 국립중앙박물관내 사회교육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9일 개소식을 가졌다.

**10월 다보탑회법문**  
해담 각화사주지 스님은 25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10월 다보탑회'에서 법문을 한다.

**도서정가제 출판포럼**  
윤정광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은 13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출판포럼에서 '도서정가제, 지켜야 할 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백두산 교차관광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월서 스님(사진 오른쪽)이 9월 27일 모향산 보현사에서 북한스님, 관광단원들과 통일기원 탑돌이를 하고 있다.

**“보현사에서 통일염원 탑돌이”**

**북한 교차관광 다녀온 월서 스님**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단의 일원으로 백두산을 다녀온 월서스님(조계종 호계위원장)은 1일 "보현사 주지 최형민스님으로부터 한반도 안변(현 행정구역은 강원도 고산군)의 석왕사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해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번 방북에서 북한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월서스님의 방북기 요약.

9월 23일, 새벽 3시30분 기상해서 일행은 백두산으로 향했다. 전날 눈이 많이 내려 밤새 군인들이 눈을 치우느라 고생했다는 얘기를 안내원으로부터 들었다. 새벽 백두산은 안개가 자욱했고 비가 조금씩 흩뿌렸다. 나는 일행보다 서둘러서 나왔다. 나의 이번 방북단 참여는 관광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안내원에게 백두산 정상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안내원이 "그럼, 우리 김정일 장군님의 만수무강도 함께 기도해주시시오"라고 말한다.

준비해 간 묵약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천수경과 반야상경, 화엄경 약한계, 무상계를 독송하고 이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불렀다. 기도를 마치고 보니 문호군 예술의 전당 공연사업본부장,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 15명이 합창한 채 동참하고 있었다.

25, 26, 27일은 백두산 일원에 조성된 김일성 항일전적지와 들쭉날, 감자농장, 삼지연 학생소년궁전 어린이 공연 관람 등으로 일정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관광단이 '학습'만 하는 관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모향산 보현사 참배와 평양 관광 일정이 추가되었다. 보현사에서 그곳 스님들과 관광단 일행이 통일 염원을 하며 탑돌이를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나부터 마음열면 평화”**

**현각스님 KAIST 강연**

화계사 국제선원 현각스님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초청으로 5일 인문사회대 시청각실에서 '현각스님의 마음 열기'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불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논리를 수반하는 과학"이라며 "그 증거는 바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님은 "타인이 먼저 마음 열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마음을 열어 사람들을 대한다면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성사 법안 스님 주지진산식**

우면산 대성사는 9월 30일 대법당에서 '묘성법안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법안 주지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대성사는 용성스님의 유훈실현 본부가 있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사찰이다"며 "백용성스님의 유훈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대성사 주지 환희 스님은 2일 경주 천룡사 주지로 부임했다.



**제 9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9월 29일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제9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열었다. 역경상을 수여한 이재성 한국백아리성전협회 회장을 비롯해 문학상 노경식 씨(극작가), 대중예술상 김병조씨(방송인)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염불만일회 건봉사 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는 1~2일 고성 건봉사에서 제6차 성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무야미타불 1만 5천여점, 생활 염불제, 등공대 남북통일기원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토사 주지 스님과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회 수술비 1천만원 전달**

생명나눔선교회 이사장 법장스님은 5일 오전 생명나눔선교회 회의실에서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청년불자 오승우씨의 치료비 및 수술비 1천만원을 오씨의 어머니 이명순씨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1천만원은 생명나눔선교회에서 모금했다.

**“낮은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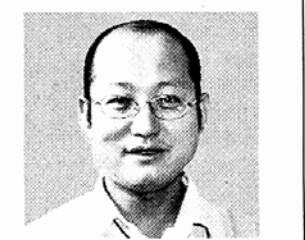
**부산 청년불자산악회 김중성 회장**

"산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의 현대가 스미게 하는 것이 청년불자산악회의 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지만 가장 낮은 마음으로 청년 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부산청년불자산악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중성씨(42·부산불교방송 기술부장)는 취임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산과의 인연이 20년을 넘었다고 밝힌 김회장이 청년불자산악회에 참여한 것은 4백 여회에 달하는 산행 경험으로 1년전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부터다.

김회장은 매일 둘째 주 일요일마다 열고 있는 정기 산행에 불교미술, 불교영화 등을 조명하는 테마 프로그램을 넣어 불교를 주제로 한 소그룹 산행으로 활성화



화 시킬 계획이다. 또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4일에는 부산청년불자산악회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활동 기금 마련에도 나선다. 일상을 불교적 행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산행을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김회장은 "이번 집행부가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으로 기억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것은 20년간의 산행이 그에게 준 겸손의 가르침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조계사 범종 3년만에 제자리**

지난 97년 파주 보광사로 이운됐던 조계사 범종이 9월27일 조계사 대웅전에 다시 봉안됐다. 이 종은 원래 국보 제 367호로 지정된 경기 용문산 상원사종으로 광복이후 조계사로 옮겨졌다. 이 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으로 알려져 왔으나, 가짜라는 설이 제기되면서 1962년 국보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이후 이 종이 진품이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21세기를 선도할 불교지도자 양성의 요람**

**“30년의 전통” 한국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실선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본 대학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교역자 양성과 불자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통신대학연혁】**

1965. 10. 24. 본 대학의 설립자이신 한정섭박사님께서 강원도에 나가지 못하는 스님과 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교육원의 필요성을 인식, 당시 동국역경원장 이운허스님, 화운사 주지 김대은스님, 동국대학원 원장 김동학박사님을 모시고 통신교과 편찬(12년간)

1976. 7. 18 2년 과정의 불교통신교육원 개원(관하)

1983. 9. 5 불교통신대학 승격

초대학정으로 인덕암대중사 취임

1984. 8. 15 불교통신대학원 1년 과정 개설

초대 대학원장 조종현대신사 취임

1988. 1. 10 제2대 대학원장 한정섭박사 취임

1997. 3. 12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이사장 한정섭 대법사 취임

1999. 10.30 제7대 학장 한정섭박사 취임

제9대 대학원장 석성륜스님 취임

**1. 모집학과**

(1)대학: 불교포교학과, 승가학과, 불교학과  
(2)대학원: 경학과, 논학과, 선학과, 율학과, 심장학과

**2. 입학자격**

(1)포교학과는 고졸이상 동등 학력소지자.  
(2)승가학과는 출가입사 희망자로서 본 대학 기술사에서 6개월 이상 합숙훈련이 가능(2000.11.9. 입제시)  
(3)불교학과는 학력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4)대학원 과정은 불교교양대학 이상 수료자.

**3. 교육과목 및 교재**

한국불교통신대학 출판부 간행 "불교통신교재" 및 보조교재와 테이프에 의해서 단계적 교육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함.

**4.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5.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이력서 1통  
(3)주민등록등본 1통 (4)반 명함사진 3매

**6. 원서교부 및 전형**

(1)중앙교육원 02)969-2410, 962-1666 (FAX) 02-969-4981  
(2)연수원(상락할 수도원) 031) 584-0657  
(3)부산교육원 051)703-7237 (4)대구교육원(053)743-1178  
(5)구미교육원 054)455-1068 (6)충북교육원(043)223-9026  
(7)대전교육원 043)646-3023 (8)인산교육원(031)431-4951  
(9)포천교육원 031)532-4565 (10)진해교육원(055)546-4186  
(11)하연교육원(808)650-4313 (12)수원교육원(031)244-4467

**7. 합격자 발표**

심사후 합격자에 한해 합격통지서를 개별 우송함.

**8. 특 전**

(1)재학생 수업료 전액 면제 (년 4회 정기교육 수업비만 부담)  
(2)본 대학은 초종교 통불교를 지향하므로 어느 종파에도 통함.  
(3)졸업시 법사(일반), 포교사(스님)자격증 필수

**9. 기타 상세한 문의**

한국불교 통신대학 중앙교육원 : ☎ (02)962-1666, 969-2410

**한국불교예술대학 제3기 수강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작법무예 기능보유자) 김해강 큰스님의 범음과 범무를 전수코저 제3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인원: 선착순 12명
- 모집기간: 10월 24일까지 (24일 오전11시 입학식)
- 교육과정: 1) 2학기 (1년) - 기본과정  
2) 4학기 (1년) - 연구과정
- 동참회비: 월 10만원
- 특 전: 1) 기본과정 1,2학기 수강자는 수료증수여.  
2) 3,4학기 연구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품수자격증을 수여함.
- 문 의: 02)962-1666, 969-2410 Fax : 02)969-4981
-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수
1년 기본과정	1학기	육법공양 작법무·의식(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2학기	전수마라 작법무·의식(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1년 연구과정	3학기	운심계 작법무, 사다라니 작법무·의식(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4학기	삼귀의 작법무, 다계 작법무·의식(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